



인천지역 예술인 홀대 원성

8개 단체 공동성명 '시립일랑미술관' 백지화 촉구

인천지역 미술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인천시의 지역 예술인 홀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미술협회와 인천예총 등 인천지역 8개 문화예술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천시에 대해 '시립일랑미술관' 건립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립일랑미술관은 인천시가 일랑(一浪)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의 소장 작품과 자료들을 기증받아 연수구 옥련동 석산 일대에 조성하는 벽화 테마미술관이다.

김길남 인천미술협회장은 "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역예술가들의 불만이 많다"며 "인천 예술가들을 홀대하고 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왔으나 더 이상의 차별대우는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미술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는 "일랑미술관 건립계획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시켜온 예술가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총체적인 정책적 접근 시도가 필요,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지역성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시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지역과 아무 연고 없는 개인 작가를 위해 땅과 건물을 지원하고 운영까지 맡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총체적인 검토없이 개인을 위한 미술관을 시민 혈세로 건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역사적인 오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이 배출한 훌륭한 예술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과 하등 관계가 없는 특정인이 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미술관 건립을 강행하기에 앞서 지역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김길남 인천미술협회장은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계획"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인의 홀대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시는 이 교수가 소장 작품과 자료 1천500여점을 기증하기로 결정하자 연수구 옥련동 송도 석산 일대에 12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가칭 '인천시립일랑미술관'을 짓고, 미술관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갑수기자

kshan@kyungdoilbo.com

2009-09-11 09:55:07